

• International Conference •

한반도 평화 · 번영과 주변국의 전략

Th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trategic Position of Surrounding Countries

일시 2019. 12. 2. (월) 9:30 ~ 18:00

장소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김덕윤 예배실)

| 주관 |  숭실평화통일연구원
Soongsi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 후원 |  숭실대학교  통일부  통일교육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프로그램

송실평화통일연구원 국제학술대회

“한반도 평화·번영과 주변국의 전략”

Registration	09:30~10:00
개회식	10:00~10:50
개 회 사	김성배 원장/송실평화통일연구원
환 영 사	황준성 총장/송실대학교
축 사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조발제	서 호 차관/통일부
Coffee Break	10:50~11:00
세션 1. 북미협상과 북한변화를 둘러싼 미·중의 입장과 전략	11:00~12:30
사 회 자	김선욱 교수/송실대학교
발 표 자	John Delury 교수/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 주제: “Is Principle Negotiation Possibl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김경일 교수/북경대학교 - 주제: “중·북관계와 북한의 변화”
토 론 자	최우선 교수/국립외교원 Liu Ming 교수/상해사회과학원
Lunch Time	12:30~13:30
세션 2. 일본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기조와 평가	13:40~15:10
사 회 자	오철호 교수/송실대학교
발 표 자	이종원 교수/와세다대학교 - 주제: “일본 아베정권의 한반도 정책”
	김영웅 선임연구위원/러시아 연방과학원 극동연구소 - 주제: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과거, 현재, 미래”
	Natalia Kuleshova 교수/모스크바 국립대학교 - 주제: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질서”
토 론 자	최진욱 교수/리츠메이컨대학교 최재덕 교수/원광대학교

Coffee Break	15:10~15:20
--------------	-------------

세션 3. 남·북한의 입장과 전략을 통해 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가능성	15:20~16:50
--	-------------

사 회 자	서병훈 교수/송실대학교
발 표 자	백학순 소장/세종연구소 - 주제: “북한의 대미, 대남 전략” 조성렬 자문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주제: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기회의 창’ - 한국의 시각”
토 론 자	김규현 교수/송실대학교 전현준 교수/국민대학교

Coffee Break	16:50~17:00
--------------	-------------

라운드 테이블: 한반도와 남북관계 - 2019년 회고와 2020년 전망	17:00~18:00
---	-------------

좌 장	이영종 소장/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패널토론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윤석 대표/서울평양뉴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Program

Soongsil Institute for Peace & Unification(SSIPU)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trategic Position of Surrounding Countries”

Registration	09:30~10:00
Opening Ceremony	10:00~10:50
Opening Remarks	Kim, Sung-Bae Director/Soongsi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Welcoming Remarks	Hwang, Jun-Seong President/Soongsil University
Congratulatory Speech	Song, Young-Gil National Assembly Member/Deobooleoh Democratic Party
Keynote Speech	Suh, Ho Vice Minister/Ministry of Unification
Coffee Break	10:50~11:00
Session 1. The U.S and China's Strategic Position regarding U.S-North Korea's Negotiations and North Korea's Change	11:00~12:30
Moderator	Kim, Seon-Wook Professor/Soongsil University
Presenter	John Delury Associate Professor/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 Topic: Is Principle Negotiation Possibl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Jin, Jingyi Professor/Peking University – Top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Change
Discussant	Choi, Wooseon Professor/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Liu, Ming Professor/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Lunch Time	12:30~13:30
Session 2. Evaluation of Japan and Russi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13:40~15:10
Moderator	Oh, Chul H. Professor/Soongsil University
Presenter	Lee, Jong Won Professor/Waseda University – Topic: The Abe government'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Kim, Young Woong Senior Research Fellow/Far-Eastern Studies Center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Academy of Sciences – Topic: Russia'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Past, Present and Future

Natalia Kuleshova Professor/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Vice President
 – Topic: The Experience of German Unific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n Unification

Discussant **Choi, Jinwook** Chair Professor/Ritsumeikan University
Choi, Jae Duk Associate Professor/Wonkwang University

Coffee Break	15:10~15:20
---------------------	--------------------

Session 3. The possibility of Peace and Prosperity in view of North Korea's Position and Strategy	15:20~16:50
--	--------------------

Moderator **Suh, Byung Hoon** Professor/Soongsil University

Presenter **Paik, Haksoon** President/The Sejong Institute
 – Topic: North Korea's policy toward the U.S and South Korea

Cho, Seong Ryoul Senior Advisor/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 Topic: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South Korean point of view

Discussant **Kim, Gyu Hyun** Visiting Professor/Soongsil University
Chon, Hyun-Joon Adjunct Professor/Kookmin University

Coffee Break	16:50~17:00
---------------------	--------------------

Round Table. Korean Peninsula and the Rel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 Retrospect for 2019 and Prospects for 2020	17:00~18:00
---	--------------------

Moderator **Lee, Young-Jong** Director/Unification Research Institute, Joong-Ang daily

Panelists **Kim, Yeoul Soo** Chief/Security Strategy Office, Korean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An, Youn Suk Director/Seoul Pyongyang News
Hong, Soon Jick Senior Research Fellow/Future Korea Institute, Kookmin University

개회사 김성배(원장/송실평화통일연구원) / x

환영사 황준성(총장/송실대학교) / xii

세션 1. 북미협상과 북한변화를 둘러싼 미·중의 입장과 전략 / 1

사회자. 김선욱(교수/송실대학교)

발표

- Is Principle Negotiation Possibl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3
 - John Delury(교수/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 중 · 북관계와 북한의 변화 4
 - 김경일(교수/북경대학교)

토론

- 최우선(교수/국립외교원) 18
- Liu Ming(교수/상해사회과학원) 19

세션 2. 일본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기조와 평가 / 33

사회자. 오철호(교수/송실대학교)

발표

- 일본 아베정권의 한반도 정책 35
 - 이종원(교수/와세다대학교)
-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과거, 현재, 미래 46
 - 김영웅(선임연구위원/러시아 연방과학원 극동연구소)
-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질서 79
 - Natalia Kuleshova(교수/모스크바 국립대학교)

토론

- 최진욱(교수/리츠메이컨대학교) 87
- 최재덕(교수/원광대학교) 88

세션 3. 남·북한의 입장과 전략을 통해 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가능성 / 103

사회자. 서병훈(교수/송실대학교)

발표

- 북한의 대미, 대남 전략 105
 - 백학순(소장/세종연구소)
-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기회의 창' - 한국의 시각 119
 - 조성렬(자문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토론

- 김규현(교수/송실대학교) 127
- 전현준(교수/국민대학교) 134

라운드 테이블: 한반도와 남북관계 - 2019년 회고와 2020년 전망 / 139

좌장. 이영종(소장/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패널토론자

- 김열수(안보전략실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 141
- 안윤석(대표/서울평양뉴스) 142
- 홍순직(수석연구위원/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143

Opening Remarks	Kim, Sung-Bae(Director/Soongsi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 x
Welcoming Remarks	Hwang, Jun-Seong(President/Soongsil University) / xii

Session 1. The U.S and China's Strategic Position regarding U.S-North Korea's Negotiations and North Korea's Change / 1
Moderator. Kim, Seon-Wook(Professor/Soongsil University)

Presenter

- Is Principle Negotiation Possibl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3
– John Delury(Associate Professor/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Change 4
– Jin, Jingyi(Professor/Peking University)

Discussant

- Choi, Wooseon(Professor/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18
- Liu, Ming(Professor/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19

Session 2. Evaluation of Japan and Russi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 33
Moderator. Oh, Chul H.(Professor/Soongsil University)

Presenter

- The Abe government'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35
– Lee, Jong Won(Professor/Waseda University)
- Russia'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Past, Present and Future 46
– Kim, Young Woong(Senior Research Fellow/Far-Eastern Studies Center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of Russian Academy of Sciences)
- The Experience of German Unific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n Unification 79
– Natalia Kuleshova(Professor/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Vice President)

Discussant

- Choi, Jinwook(Chair Professor/Ritsumeikan University) 87
- Choi, Jae Duk(Associate Professor/Wonkwang University) 88

Session 3. The possibility of Peace and Prosperity in view of North Korea's Position and Strategy / 103

Moderator. Suh, Byung Hoon(Professor/Soongsil University)

Presenter

- North Korea's policy toward the U.S and South Korea 105
– Paik, Haksoon(President/The Sejong Institute)
-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South Korean point of view 119
– Cho, Seong Ryoul(Senior Advisor/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Discussant

- Kim, Gyu Hyun(Visiting Professor/Soongsil University) 127
- Chon, Hyun-Joon(Adjunct Professor/Kookmin University) 134

Round Table. Korean Peninsula and the Rel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 Retrospect for 2019 and Prospects for 2020 / 139

Moderator. Lee, Young-Jong(Director/Unification Research Institute, Joong-Ang daily)

Panelists

- Kim, Yeoul Soo(Chief/Security Strategy Office, Korean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141
- An, Youn Suk(Director/Seoul Pyongyang News) 142
- Hong, Soon Jick(Senior Research Fellow/Future Korea Institute, Kookmin University) 143

개회사

오늘 송실평화통일연구원이 통일부와 중앙일보의 후원으로 ‘한반도 평화·번영과 평화와 주변국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축사를 맡아주실 더불어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님, 환영사를 해주실 우리 대학의 황준성 총장님, 그리고 기조연설을 맡아주실 통일부 서호 차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하면서 한반도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비핵화 선언,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DMZ 남북미 정상 회동 등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평화에 세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지속되었고, 수차례의 입장변화 등으로 한반도에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정치적 해결의 어려움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반도의 불확실한 상황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을 주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점 또한 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기회를 살려서 우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커다란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작금의 상황을 배경에 두고 이루어지는 송실평화통일연구원의 국제세미나는 특별히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불확실한 한반도 상황과 또 이해관계를 가진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반도에서 어떻게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밝혀보는 것은 현시점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자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몇 가지 측면에서 특별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오늘 세미나에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측면의 전략에 대해 학술적으로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체제의 확립과 세계화의 확산으로 쇠퇴해 오던 지정학이 21세기에 보호무역과 자국중심주의가 부상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특히 지난 30여년간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동북아에서 미, 중, 러, 일등 4강을 필두로 한 지정학적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는 4강들의 지정학적 전략을 가장 잘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세미나는 학계와 언론의 협업의 산물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토론과 발표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종합하는 전형적인 세미나 방식과는 달리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입장과 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에, 언론계가 중심이 되어 라운드 테이블의 방식으로 한반도의 상황을 돌아보고, 새롭게 전망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미나는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가능하게 할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세미나는 송실대학이 지난 4년동안 추진해 왔던 통일선도대학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개최되어 통일선도대학사업에 마침표를 찍는 자리라는 의미도 갖습니다. 우리 대학은 2016년 통일선도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학부 및 대학원의 통일교육, 수많은 학술 세미나와 포럼의 개최, 그리고 통일교육을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노력도 경주해 왔습니다. 통일선도대학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의 마지막 달에 뜻깊은 국제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통일선도 대학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우리 대학의 의지가 이 세미나에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세미나의 진행과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미나의 사회, 발표, 토론 등으로 수고해 주실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행사 준비로 수고해 주신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식구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송실평화통일연구 원장 **김성배**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송실대학교 총장 황준성입니다.

송실평화통일연구원이 “한반도 평화·번영과 주변국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에
귀빈들과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이번 학술대회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님, 그리고 기조연설을 해주실 서호 통일부차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의 발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국내외 학자 여러분과 참관을 위해 오신 손님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모로 수고해주신 김성배 원장님과 연구원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모름지기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기 마련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오늘, 송실대
에서 개최하는 것은 ‘꼭 필요한 때’와 ‘최적의 장소’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매우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시기적으로는 2019년의 마지막 달이자 대망의 2020년을 목전에 둔 역사적인 순간인 동시에 정치,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때입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세계 1, 2위의 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개된 첨예한 무역전쟁이 긴 터널을 지나
화해국면으로의 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무역
전쟁의 파도를 지근거리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 싸움이 진정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은 또한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지 만 2년이 경과된 때로서, 그들이
미국과의 실질적인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금년 안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새로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지? 기대에 어긋나게 강경노선으로
회기하여 또다시 긴장국면이 조성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새로운 길’이 모색될 것인지? 등의 가능성을
두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국제 학술대회를 한반도의 서울, 특히 송실대에서 개최하는 데에도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위상 때문에 열강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이라는 난제가 수면위로 부상한 이후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이곳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들이 북핵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거나,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치, 경제적 역할을 주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소로는 서울, 그중에서도 송실대가 제격입니다. 송실대는 지금으로부터 122년 전인 1897년에 평양에서 미국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송실학당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곧이어 평양시민들의 소중한 성금이 바탕이 되어 대학으로 발전한 이래 각 분야에서 민족의 근대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뿌리를 가진 송실대는 한국 유일의 이산대학, 분단대학으로서 통일에 대한 남다른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제2의 창학을 선언하면서 대학의 주된 지향점을 '통일'로 설정하고 전교생에 대한 통일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정부로부터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송실대의 경험에서 축적된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법과 콘텐츠를 전국의 대학에 확산시키는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멀게는 러시아와 미국으로부터, 중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에 정통한 국내외의 학자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수준 높은 발표와 열띤 토론, 그리고 창의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들이 다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한 지혜와 건설적인 아이디어들이 모아지는 국제학술대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송실대학교 총장 **황준성**

세션 1.

북미협상과 북한변화를 둘러싼 미 · 중의 입장과 전략

- 발표 1-1. Is Principle Negotiation Possibl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 John Delury(교수/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 발표 1-2. 중 · 북관계와 북한의 변화
- 김경일(교수/북경대학교)
- 토론 1. 최우선(교수/국립외교원)
- 토론 2. Liu Ming(교수/상해사회과학원)

발표 1-1.

Is Principle Negotiation Possibl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John Delury

교수/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MEMO

발표 1-2.

중·북관계와 북한의 변화

김경일

교수/북경대학교



항일전쟁시기 중국공산당과 북한공산주의자들

- __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 (이른바 연안파) 연안에서 설립, 중국공산당지도부와 깊은 관계. 귀국후 연안파 신민당을 창립.
- __중국공산당 조선인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조선군정학교를 설립
- __동북항일연군소속의 조선공산주의자들 (이른바 항일빨찌산파). 귀국후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북조선공산당) 성립.
- __1946년 7월27일 신민당과 북조선공산당 합당, 북조선노동당 결성.

동북해방전쟁시기 중국공산당과 북한

- __일본이 투항한 후 중국의 동북 정치적인 공백. 국민당과 공산당이 쟁탈하는 초점, 미국과 소련이 세력범위를 다투는 초점. 동북 원동국제정치 초점으로 부상. 누가 동북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주인이 결정되는 판가리싸움.
- __국공내전, 동북쟁탈전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설립한 북한은 중국공산당을 물심양면으로 지원, 일본침략군이 남겨놓은 무기, 화약, 뇌관 등2, 000여 货车的 작전물자를 지원.
- __중북간 가교역할은 동북항일연군출신의 주보중(周保中) , 왕일지(王一知), 강환주(姜煥舟)등이 주도. 이 시기 중국공산당은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전폭 지지, 남한정부를 괴뢰정부로 규명, 이승만을 중국의 장개석과 동일시

한국전쟁의 발발과 중국참전의 마지노선

- 남북한 1949년 1월부터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3.8선에서 무려 874차례 충돌.
- 남북은 정부수립후 서로 자기가 합법정부라고 주장, 헌법에 한반도전체로 자기영토로 규정.
- 남북에 있어서 3.8선은 분계선이 아닌 것. 그렇지만 미소에 있어서는 엄연히 분계선.
- 3.8선의 이 이중구도는 미국이나 소련의 목인이 없이는 깨뜨릴 수 없는 것. 결과적으로 소련의 목인하에 깨진 것.
- 중국은 미국이 3.8선을 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고 넘으면 반드시 개입한다고 미국에 경고, 3.8선은 중국에 있어서도 마지노선.

한국전쟁후의 북중갈등

- 한국전쟁에서 중국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전쟁에 개입하였고 중국과 북한이 이른바 “피로써 맺어진 우의”라는 “혈맹관계”를 맺은 배경이다.
- 한국전쟁중 중국과 북한, 중북군대의 지휘권문제, 철도관리권 등 문제로 심한 갈등.
- 1956년의 “8월중파사건”으로 “연안파”들이 숙청되던때에 중국과 소련 팽덕회와 미교안을 북한에 파견, 숙청한 “연안파”들의 원상복귀를 요구, 중소와 북한관계가 크게 경직.
- 1958년 중국군이 북한에서 전부 철수하면서 양국갈등이 봉합.
- 1966년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홍위병들이 북한을 수정주의로 비난하면서 북중간 다시 첨예한 갈등.

한국전쟁후 중국의 대북원조

- 한국전쟁이 끝난후 북한은 10년도 안되는 시간에 전후복구건설을 완성하여 1960년대 경제규모가 한국을 초월. 원동력은 바로 소련, 중국과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원조.
- 북한은 1970년대까지 이 나라들로부터 20억달러나 되는 원조를 받음. 그 가운데 소련의 원조는 47%, 중국의 원조는 30%.
- 중북 경제협력, 경제무역관계에는 경제적 논리나 물보다 정치적인논리가 우위를 차지.
-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지정학적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북관계에는 지정학적요소가 우위를 차지.
- 양국 경제관계, 전략적 안전을 위주로 하는 관계. 중북간 국가간관계를 벗어난 특수관계가 형성

냉전시기의 중북관계

- 한국전쟁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상호 반공동맹을 구축. 동북아 한미일 "남방삼각"과 북중러 "북방삼각"의 냉전구도가 구축
- 한국전쟁으로 고착화된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정전체제는 동서냉전이라는 질서에 편입
- "사회주의대가정"에 귀속된 중북관계는 정상적인 "국가관계"도 아니고 확실한 "동맹관계"도 아닌 "형제적관계".
- 중국과 미국 관계개선시 북한 적극 지지, 중국의 뒤를 따라 외교공간을 확대. 유엔무대로 복귀한 중국 국제무대에서 사실상 소련을 제치고 북한의 대변인으로 나섬. 그 시기 중국은 북한을 대변하여 미국과 한반도문제를 논의, 미국의 일부 협력도 이끌어냄.

중국의 개혁개방과 북한의 개혁개방 시도

- 1980년대 북한은 중국과 같은 시공간대에 개혁개방 시도
- 김일성 무려 5차례 중국을 방문, 덩샤오핑과 함께 개혁개방 현장 시찰
- 중국 최고지도자인 덩소평, 조자양, 호요방, 이선념, 양상곤, 강택민 등의 방북, 양국관계 황금기
- 중국 1983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발표, 북한도 1984년에 “합자경영법” 발표,
- 북한 뒤이어 “외국인 소득세법”, “외화관리법”, “자유무역구법” 등 발표
- 북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슬로건

북한 개혁개방시도가 좌절 한 결정적 요소

- 중국 “문화대혁명”때문에 경제가 붕괴직전, 개혁개방이 절박
- 북한 1980년대 중반 경제가 절정, 개혁개방이 중국처럼 절박하지 않음
- 1980년대말 중국의 “천안문사태”, 구소련의 해체,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북한 쇼크, 개혁개방때문이라고 인식, 개혁개방포기, 핵개발의 길을 선택
- 중국 천안문사태후 덩샤오핑 남순강화로 본격적인 개혁개방, 그후 30년 천지개벽의 변화
- 북한 30년 핵개발,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같은 처절한 대가 지불

김정은시대 비정상화의 정상화

- 김정은 시대 핵심키워드는 "변화"
- 김정일시대 당, 정, 군 시스템 비정상적 운영
- 국방위원회가 최고권력기구, 위기관리시스템 선군정치
- 김정은시대 당, 정, 군 정상화 실현, 당 정치국, 당중앙전원회의 정상화
- 김정일시대 "유일사상 10대원칙" 김정은시대 "유일영도 10대원칙"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공산주의" 표현 삭제, 당의 권위와 절대적영도 복원
- 경제건설의 중심지위 확립"
-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달리 과감히 자기를 반성하는 개방된 모습

김정은 시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 내각책임제와 내각중심제 특히 강조
- 내각의 주도하에 "우리식 경제관리방법"탐구, 실천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확립, 새로운 전환, 인적, 물적, 지적 자원개발
- 2012년부터 농촌의 포전담당제 등 시범, 점차 전면 실시.
- "6.28조치"와 '5.30 노작' 으로 불리는 새로운 개혁조치

김정은 시대 중앙권력의 이전

- 고도로 집중됐던 권력이 “경영자주권확대”, “경영권한의 하방” 방식으로 공장, 기업, 농촌, 지방정부, 개발구, 중앙은행 등으로 생산권, 분배권, 무역권등이 이전
-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권력을 아래에 내려 보내는 과정,
-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 자율경영권 부여, 기업이 국가계획외의 생산 내용과 목표를 자체로 설정,
- 기층에 외사권 부여, 외화벌이, 외화구좌 설치, 대신 국가에 바치는 달러임무량을 할당
- 경제개발구 개발구 법에 따라 경제무역관리 면에서 많은 권력 부여

경공업우선 정책과 국산화

- 경공업우선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기업과 공장들의 가동을 정상적 수준 회복
- 1980년대 초반 중국의 경공업 우선발전정책과 같은 맥락
- 김정은 생산의 “정상화” 강조, 공장기업소 “만부하” 강조
- 북한자체 제품생산에 주력, 소비품시장과 양성순환 시도
- 평양의 “광복지구 상업중심”의 대형 마트 80%이상 국산화(2017년)
- 김정은이 시찰한 “대성백화점” 부식품 100%국산화(2019년)

김정은 시대 시장경제요소의 확장

- 계획경제 무력화, 배급제 유명무실, 아래로부터 위로의 변화
- 북한은 생존을 위해 “시장”을 선택, “시장”은 북한주민들의 생존수단
- 2009년 계획경제강화와 시장축소를 목표로 하였던 “화폐개혁” 실패
사실상 “시장경제요소”의 힘에 밀린 것
- 초기 중국 사상해방으로 시장경제유도, 북한 사상해방이 불필요 할 정도로 시장에 올인
- 김정은정권 들어서서 200여개의 장마당이 500개로 확장
- 북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힘겨루기, 1990년대 초반 중국과 비슷

시장경제요소, 북한경제의 버팀목역할

- “시장화” 끈질긴 생명력, 북한 경제의 버팀목 역할
- 초기 중국 사상해방으로 시장경제유도, 북한 사상해방이 불필요 할 정도로 시장에 올인
- 시장경제요소가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 시장경제요소 북한정권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확장
- 북한변화의 희망, 북한 전역에 퍼져가는 시장경제의 요소를 확장하는데 있을 것

변화의 핵심은 관념과 의식, 가치관의 변화

- “수령유일지도체제”, 수령에 대한 충성이 가장 중요한 기반
- 시장경제요소 확장, 돈주, 중산층 증가, 돈과 시장에 대해 “충성”
-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살 수 있다는 관념이 변화를 촉구
- 개인주의, 시장경제 관념이 깊이 뿌리를 박고 있음
- “개혁”과 “시장경제화”에 힘입어 북한경제 오름세를 보여왔음

노선의 전환과 실질적 개혁개방의 선언

- 노동당 7기 3차전원회의에서 선포한 병진노선의 종식, 경제발전을 새로운 전략노선 획기적인 사변. 중국의 11기 3중전원회의에 버금가는 실질적 개혁개방의 선언
- 김정일시대의 선군정치를 종식
- 김정일시대의 상징인 핵미사일개발도 마침표
- 김정일시대의 종식과 김정은 시대의 개막 선포
- 중국은 11기 3중전회의 노선 전환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오늘의 중국을 만들, 북한도 이 노선 전환이 새로운 북한을 창출할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김정은시대 도약식발전의 시도

- 덩샤오핑 40년전 방북시 김일성에게 60년대 현대화가 다르고 70년대 현대화가 다르다면서 “반드시 국제적인 선진기술을 우리 현대화의 출발점으로 하여야 한다”고 역설
- 북한은 삐삐나 대형급핸드폰 생략, 직접 3G 핸드폰시대에 합류, 도약식 발전을 시도,
-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새 재료기술, 새 에너지기술 분야 주력
- 세계가 도달한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내에 도달하려고 시도
- “도약식발전”, “개혁개방”보다 체제에 위험부담이 없다고 판단
- 2022년까지 북한을 IT강국으로 건설, 최첨단기술로 “단숨에” 최정상에 오르려 함
- 세계 변화의 흐름을 타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합류하려 함

북핵과 북중관계

- 북한은 자기들은 “강하면 유리하고 약하면 불리한 지정학적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핵을 보유함으로써 지난시기의 “지정학적열세”를 “지정학적우세”로 전환시켰다고 선전. 북한, 지정학적요소를 최대한 이용, “벼랑끝전술”은 그 절정.
- 중국은 북핵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힘을 실어 주고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빌미를 제공하면서 중국을 곤경에 빠뜨린다고 판단.
- 북한의 3차핵실험을 계기로 중북관계가 전례없는 냉각기, 중국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 참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호소.
- 중국은 북핵이 자의던 타의던 미국의 대동아시아전략과 연동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판짜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북핵문제 근원적해결은 냉전구도의 해체

- 냉전이 종식된후 미국 한반도를 자기의 전략프레임에 가두어 놓음, “남방삼각”대“북한” 대결의 냉전구도 북핵문제발생의 근원
- 미국은 한반도냉전구도가 필요, 북한은 냉전구도를 탈피하려, 북핵은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과 북한 생존전략의 충돌의 결과물
- 북핵게임의 결과,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전례없이 강화, 오바마시기의 아시아회귀전략, 트럼프의 인도-태평양전략
- 북한은 물론,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나라들 모두 미국의 “제재 프레임”에 갇혀 동북아의 경제협력체 구축 불가능
- 북핵문제의 근원적해결은 냉전구도의 해체, 냉전구도는 냉전의 방식으로 해 결 못함

북핵과 미국의 “제재 프레임”

- 미국은 ‘제재 프레임’ 으로 북한을 끝까지 밀어붙일 태세, 문제의 본질은 제재프레임과 미국전략의 연동.
- 북핵문제 시작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북한의 생존 전략의 충돌
- 미국의 많은 동맹 전문가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선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심히 우려,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문제 대두, 주일미군 문제도 부상, 미국의 냉전 전략가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
- 북한에 대한 제재 프레임을 만들고 동북아를 그 속에 가둬놓는 게 중국과 대결하는 미국의 전략에 이로울 것

중국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추진

- 중국 북핵과 한반도문제의 근원은 바로 한반도 정전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냉전구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인식
- “냉전구도”가 존재하는 한 그로서 파생되는 군사적긴장 멈출 수 없다고 인식
- 미국의 주도하에 군사적역량과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안전보장 방식은 냉전시기의 안전보장방식으로 인식, 동아시아 안전보장체제가 구축되지 못한 원인
- 북핵문제해결에서 표면적인 것과 근원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자는 표본겸치(标本兼治)의 안을 제시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로 “쌍궤병진”을 제시

중국, 북미가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 것을 주장

- 북한 4·6차 핵실험후 중국과 미국 책임론공방 사실상 북핵문제의 근원에 대한 논쟁
- “한반도 관련국들 평화조약 체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실현
-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 중대한 안보관심사를 해결
-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은 중국이 국가이익에 부합
- 중국 북한과 미국이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 것을 주장, 북핵이라는 방울은 북한과 미국이 달았고 방울 단 사람이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인식.
- 중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관계개선”, “평화협정체결”, “북한의 안전보장”을 줄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고 주장.

북한의 개혁개방과 비핵화의지의 연동성

- 비핵화와 개혁·개방 의지는 연동, 나라를 최빈국에서 부강한 나라로 건설하려는 의지와 개혁개방 의지가 강할수록 비핵화 탄력을 받을 것
-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 완화, 북한의 개혁·개방에 힘을 실어줄 것
- 북한개혁개방을 격려하고 개혁개방을 위한 조건을 창조, 북핵문제해결의 지름길
- 북한 2012 ~2015 4년간 북한 매년 경제개혁 조치가 나왔지만 2016년 이후 대북제재국면에서 경제개혁조치 스톱

중미갈등의 본격화, 북핵과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

- 당대 주요 모순인 미-중 갈등에 의해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다른 갈등들이 파생
- 미국 신국가안보전략, 중국을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전략적 경쟁국’으로 규정
-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참여시키려고 시도
-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결의 전면전에 돌입, 미국 한반도문제에 전략적 접근, 북핵문제해결이 요원해질수 있을 것, 동북아 국제정치가 지난 시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전개될 것.
- 북중관계 역시 중미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과정에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될 것

북중관계 정상적국가관계로의 발전

- 김정은시대 중북관계에 나서는 가장 큰 걸림돌 핵미사일개발
- 북한이 핵무력완성을 선포하고 비핵화의지를 밝히면서 중북관계는 신속하게 개선
- 일각에서 중북관계가 러시아와 연동하여 새로운 북방삼각으로 미국과 대결하는 냉전을 운운, 그렇지만 중국은 냉전시기 소련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
- 중북관계는 여전히 냉전시기의 비정상적관계로부터 정상적인 국가관계로의 발전을 이어갈 것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2.

The Assessment of US-DPRK Talks Since Singapore Summit and Following Development

Liu Ming

교수/상해사회과학원

US-DPRK talks are stymied

- Evidence of regress revealed in the Singapore talks and Stockholm dialogue:
- ❑ Kim Jong-en New Year message indicated a year-end deadline for waiting for the US policy change.

1

- ❑ NK proposal at Hanoi's summit:
- ❑ discarding nuclear materials and dismantling facilities all at Yongbyon;
- ❑ Not mentioning all nuclear weapons arsenal, production and other places materials.

2

- North Korea turned down a U.S. offer for resuming talks through Sweden, setting a pre-condition for Washington to change hostile policy first.
- It is a tactics as well as a strategy adjustment:
- ❑ Raising the bar and avoiding of making a substantial concession.

3

- ❑ Having the initiative of the agenda on the US-DPRK talks, even the into-Korean relations;
- ❑ Denuclearization issue has been replaced and seconded by the US first concession on sanction, military exercises.

4

The Conjecture for NK Intention

- NK military and other interests groups have suspicion about the consequences of denuclearization:
- ❑ CVID, FVVD, the inspection, systemically losing the deterring defense capability and military position versus South Korea and Japan.

5

➤ The terms and position of the talks are not equal:

❑ NK is regarded as violator of international norms, an object of being examined in the process;

❑ It should rectify its wrongdoing first;

6

❑ The US will be the judge and could decide how, whether and when they can offer some rewards;

❑ NK is the beggar;

❑ What the US demands is NK significant interests and assets;

❑ The US returns just looks pretty in appearance---declaring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establishing a liaison office;

7

- ❑ Any NK first move will be asked to be followed by the next and being challenged the facticity and integrity;
- ❑ NK People will have doubt about this endless and unilateral concession with little taking.

8

NK Weighing Options

- Suspension talks with US and maintaining nuclear and missiles production without massive strategically testing.
- Pressing US to hold a talk on limiting NK nuclear development.

9

➤ Bargaining for a small deal:

- ❑ Structurally destroys Punggye-ri site, dismantles all Yongbyon facilities with an limited inspection and long-term monitoring.
- ❑ Suspension of all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and major ballistic missiles.
- ❑ Suspension of new nuclear war-heads to be loaded into missiles.

10

- ❑ In exchange for:
- ❑ US lifts a proportional of sanctions.
- ❑ The proportional of sanctions definitely imply significant items--- oils import, normal trading relations with the outside, less restriction of financial transaction, etc.
- ❑ US stop dispatching strategic weapons into Korean Peninsula.

11

- Should the US accepts the small deal, a next deal might be possible, but still limited:
- ❑ It could mean: US accepting it as a de facto nuclear status;
- The attached condition are:
- ❑ No intrusive and unbounded inspection.

12

- ❑ No dismantling arsenal and production facilities for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 Let alone shipping scraps out of country.
- Peace mechanism and security assurance is not indispensable.

13

American Options: from Illusion to Reality

- The US has realized NK will not go denuclearized.
- Big deal and CVID are unrealistic goal and principle.
- A pragmatic progress is needed politically.

14

- Stephen Biegun is eager to resume the stalled negotiations.
- Continuing to move the process is to avoid being derailed and the public feeling a hoax again.
- Pushing for a small deal with a precondition of NK fully committing to the elimination of its weapons and programs could not be a basic principle.

15

- The US has to control the negative effects of suspicion and opposition on the approach of incremental denuclearization.
- It has to avoid repeating previous failure with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the partial concession.

16

- US tactics will be:
- Sophisticated calculation for the relief, the broad sanctions will remain in place;
- International inspection be included;
- Shutdown Yongbyon just forms a basis for NK guaranteeing next step denuclearization.

17

Uncertain Prospects of the Talks

- The vast disconnect between the two proposals--- it is difficult for the US to openly give away denuclearization goal.
- NK turns tough on the terms and the power of negotiation shifted to professional FM, attitude become faltering.

18

- New summit has lost its attractiveness and momentum:
 - ❑ Powerful and authoritarian leaders are fearful of the consequence of the loose deal, relying on professional officials advice.
 - ❑ A meticulous working-level talks have more good effects.

19

- A crisis or any other distraction could derail talks.
- NK set the end of year as a deadline for the U.S.--- a bluff, bullying or their word counts?
- NK asks for discarding “hostile policy” is a broad reference beyond to be realized.

20

- Situation turns ominous:
 - ❑ The talks are stalled longer than half year;
 - ❑ NK intensifies its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 ❑ Byungjin policy re-starts;
 - ❑ US military exercises resume next year.

21

Conclusion:

- The international expectation on the breakthrough of US-NK relations has lost;
- Trump and Kim know their glorifying shows have no more attractiveness & mysteriousness.

22

- Both sides still need the talks and progress politically;
- The obstacles are bigger than they are prepared;
- Exploring a half-way proposal is still their hope;

23

- NK knows back to 2017 is a red-line they can't cross;
- A grey-zone Byungjin policy in essence will be Pyongyang's possible option;
- US-NK talks will be on and off for sometimes.

24

- NK knows back to 2017 is a red-line they can't cross;
- A grey-zone Byungjin policy in essence will be Pyongyang's possible option;
- US-NK talks will be on and off for sometimes.